

대한유방검진의학회 발전사

문 우 경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대한유방검진의학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방암 국가검진사업이 본격 시작되고 유방촬영 기기 및 인력에 대한 품질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인 2004년에 창립되었다. 당시 학회 창립자들은 학회의 목적을 “유방검진에 관련된 학술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유방검진과 관련된 국내 및 국제학술 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학술 진흥에 이바지 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했다. 학회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학술 대회 개최와 정기적인 학술지 발간, 다기관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한 전향적 연구 활성화, 유방 검진 의사의 교육 그리고 대국민 유방검진 필요성과 어웨어니스에 관한 홍보 등의 활동을 지난 20년간 꾸준히 진행했다. 특히 학술 연구 발표와 새로운 전문 지식 습득 그리고 회원간의 중요한 교류의 장인 학술대회는 봄과 가을 두 번 빠뜨리지 않고 개최하였는데 봄 학회 때는 정기총회를 진행해서 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등 중요 사안을 토의했다. 그 동안 춘계 학회는 화순, 춘천, 속초, 대전, 제주, 대구, 남해, 여수, 평창, 인천, 경주, 전주 등 지방에서 개최하였으며 대국민 홍보활동 및 무료검진도 같이 실시했었다. 추계 학회는 2009년까지는 주로 11월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되었고 2010년부터는 12월에 삼성서울병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창립 당시 학회 명은 대한유방검진학회였지만 대한의학회 산하 학술단체들의 학회명칭과 동등하게 2010년 대한유방검진의학회로 바꾸었다. 회원수는 창립 당시 39명에서 2024년 현재 696명으로 늘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학회의 중요한 국제 학술 활동과 그 성과들을 정리해 본다. 2005년 9월에는 제4차 대한유방검진의학회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가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되었고 외국 연자로는 노르웨이의 Per SKANNE, 미국의 Edward SICKLES, 일본의 Ei UENO가 초청되어 스웨덴 국가검진 결과, 디지털 유방촬영 그리고 일본 JSUM/JABTS 유방초음파 판독 가이드라인에 대해 각각 강연했다. 2009년 9월에는 제12차 대한유방검진의학회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가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되었다.

외국 연자로는 미국 American Cancer Society의 Robert SMITH, J-START 리더인 일본 Noriaki OHUCHI, 예방의학자인 대만 Tony CHEN이 초청되어 각국의 유방촬영과 초음파를 이용한 유방암 검진 결과 및 교훈에 대해 발표했다. 2019년 4월에는 제30차 대한유방검진의학회 총회 및 한중일 유방영상학회가 삼성서울병원에서 개최되었다 (사진). 일본에서 5명 (Mitsuhiro TOZAKI, Hiroko TSUNODA, Takayoshi UEMATSU, Mari

KIKUCHI, Masako KATAOKA), 중국에서 5명 (Dengbin WANG, Fan YANG, Yajia GU, Kun CAO, Chao YOU) 그리고 스웨덴의 Kristina LANG이 초청되어 치밀유방 등 아시아 여성에서 검진 문제, 한국에서 진행중인 고위험군 검진 연구, 디지털 유방토모신테시스, 확산강조영상과 비조영 MRI, Neoadjuvant Systemic Therapy Imaging, Radiomics 등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국제학회는 학술 교류를 통해 국내 유방영상의학 분야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미국 (SBI) 및 유럽 유방영상의학회 (EUSOBI)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학술 활동과 연구 수준을 반영하는 북미방사선의학회 (RSNA) 유방분야 발표 건수나 Radiology 원저 발표 건수도 계속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인 2위로 캐나다, 독일, 이태리, 영국, 일본 등보다 앞서고 있다.

하지만, 20년의 여정 중 어려움과 도전 과제도 있었다. 초창기에는 회원 수 증가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술 연구 활동과 대국민 홍보 등 두 가지 목표의 균형을 이루어야 했으며 다학제 학회의 운영 비효율성과 발전 장애 요인 등을 찾아 극복해야 했다. 또한 아시아 유방영상의학회 창설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한중학회는 2015년 우리나라의 메르스 (MERS) 사태로 취소되었고 2019년 시작되었던 한중일 학회 또한 이후 사드 (THAAD) 사태와 코로나 사태로 다시 개최하는데 어려운 시기를 맞기도 했다. 향후 10년, 20년 동안 학회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야 할 시점을 맞아 지나온 이야기들이 새로운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대한유방검진의학회를 위해 헌신한 창립 멤버, 역대 임원, 회원들과 협력 기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2019년 4월 개최된 한중일 유방학회 단체사진